

성북승무소 법우회 가족봉사단 창단

11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도 불우청소년·독거노인 등 지원 계획

서울 성북 철도불자들이 활동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시킨 가족봉사단을 창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회장 도기환)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문차량사무소 본관 문화홀에서 회원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한다.

가족봉사단은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가 10년 동안 각종 봉사과 포교, 신행활동 등을 통해 일궈낸 성과물이다. 1995년 구로승무사사무소에서 분리된 직후 창립한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는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직장 신행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매년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해 온 것을 비롯해 성남 자광원, 의정부 선재동자원 등 복지시설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해 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가족봉사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매월 한차례 가족봉사단 창단을 위한 예비교육을 진행해 왔다.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 가족봉사단은 앞으로 의정부 선재동자원에서 매월 두차례 빨래, 청소,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간다.

또 결혼가정 중·고교생 6명에게 월 60만원 지원하며, 독거노인 병원비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기한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장은 "직장 불교도 태동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직장신행단체들은 여전히 정기법회나 성지순례와 같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등 저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그림·박구원

다"며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는 이런 직장 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장내 신행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봉사단 창단식은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열

린다. 이날 행사는 창립 10주년 발원문 낭독을 비롯해 신행의 모범을 보인 회원에게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이진욱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



서울에 이어 주요 정부기관이 자리 잡은 행정도시 대전광역시.이진욱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55·교통국장)은 대전지역 공무원불자들이 어느 지역 보다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제 겨우 세 살인 시청불자회가 대전정부청사, 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과 더불어 공무원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회장의 발로 뛰는 노고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11월 12에는 대전 광수사에서 관세청불자들이 연합회 창립 법회를 열었다. 시청불자회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함께 참석해 축하해주자고 제안해 두었지요. 근무처는 다르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면 큰 힘이 되거든요."

내무부 근무시절 아내를 따라 서울 목동 법안정사를 다니기 시작한 이 회장은 이후 착실한 불자가 됐다. 이전에도 절을 찾다니긴 했지만 불자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다. 이 회장은 요즘 직장내 신행활동을 알리고 권장하는 '전법사'가 됐다.

"직장업무에 쫓기다보면 절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직장에서

불자회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불자회 활동과 신행활동은 이 회장에게 큰 힘이 된다. 업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경우에 처했을 때 가장 든든한 것은 부처님과 불자회원들이다. 유독 불자회원들에게 동료애와 든든함을 크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 불자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첫째 서원으로 세웠다. 좀처럼 나서려하지 않는 불자들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도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바람이 한 가지 더 생겼다.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불자들의 신행거점'으로 만드는 일이다.

"대전광역시청 행정, 교통, 물류 등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시청불자회 회원들은 공무원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공무원불자들의 신행거점'의 바람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박봉영 기자

"충남 경찰 또 뭉쳤다"

충남지방청·산하경찰서 '화합마당' 경찰청·경찰병원 합동 템플스테이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 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경찰불자 화합 한마당'에서 단체 줄다리를 하는 충남 경찰불자들.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힘을 과시했다. 경찰청과 경찰병원 불자들도 합동으로 템플스테이와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장 이기범)와 산

하 19개 경찰서 불교회는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 운동장에서 '충남 경찰불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경승단 충남지단장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을 비롯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50

여 경승 스님과 경찰불자 500여명은 이날 "충남의 모든 경찰불자와 경승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경찰불교를 활성화시키고 충남지역 불교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합동법회를 시작으로 바터트리, 줄다리기, 2인3각 등 체육·화합 프로그램, 경찰불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한 가족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와 경승단 충남지단은 앞으로 인근 경찰서 불교회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승을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스님들을 경승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승단 충남지단 주도로 경승 현황과 경찰법당 운영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청 불교회와 경찰병원 법우회는 11월 5-6일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경찰청 불자 30여명과 경찰병원 불자 20여명은 도심에서 떠나 산사에서 아침을 맞으며 새벽예불, 발우공양, 숲길 산책 등을 체험했다.

경찰청·경찰병원 불자들은 6일 광주 향림사로 자리를 옮겨 복지시설 향림원에 거주하는 어르신·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 무료진료 봉사를 벌였다. 봉사는 내과 진료와 수지침, 발마사지 서비스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교불련 개신교 교수협과 교류

교수불자들이 개신교신자 교수들과 학술교류에 나선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이하 교불련)는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공동대표 이종우 등)와 학술 및 종교간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교수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개신교 신자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모임.

내년 공동세미나 개최

교류 일환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을 가동하는 한편, 내년 불·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와 권력의 역사, 교리, 현대사회'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양측이 각각 3-4인의 기조강연과 발표, 논평 등을 맡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교불련은 부회장에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박운용 등에게 교수와 박공섭 충남대 교수를 선임했으며, 우희중 서울대 교수와 노태전 충남대 교수를 각각 연구운영위원, 교화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봉영 기자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주자

'11월 26일은 공무원 불자 사회봉사의 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가 11월 26일을 '공무원 불자 사회봉사의 날'로 선포했다. 200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공불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을 돕고, 남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 되돌려 주고자 사회봉사의 날을 제정한 것"이라며 "공무원불자 사회봉사의 날"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소속 280여 단체에 하달했다. 소속 단체들은 실정에 맞춰 지역별

연대 또는 개별적으로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면 된다.

서울·경기지역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불자들은 '사회봉사의 날'에 맞추어 서울 삼천사 인근 덕노빈복지센터에서 봉사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봉사에는 50여 서울·경기 공무원불자들이 동참해 김장담그기, 어르신 발마사지, 목욕, 빨래 등을 도울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1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등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등으로 회원 검색기능
- 월영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장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임활용서
 - 육임래정비법 (전1권) 15만원
 - 육임래정비법후대용 (전6권) 2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 육임래정비법핵심판 (최정용 전12권) 50만원
 - 육임래정비법핵심판 (후대용 전12권) 70만원
 - 육임래정비법수정본 (전12권) 100만원
 -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 육임학습도서
 -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 육임운영판단법 (전1권) 5만원
 -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이명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